돈가스 제조기술 5건 특허 등 확고한 입지

광주시장상 홍승표 히노아스카㈜ 대표

히노아스카㈜는 지난 2013년 설립 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국내 외식·식품 제조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외식 업계에 위기가 도래했을 당시에도 직원 감축 없이 온라인 B2B, B2C 사업에 과감히 영역을 확장하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했다.

특히 이들은 식약처 HACCP(위해요소분석) 인증을 기반으로 자동화 라인과 고도화된 제조 설비를 구축해 제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식품 유통 및 안전 인프라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히노아스카㈜는 자체 브랜드 양산을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뛰어들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업계에서는 손에 꼽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00% 한돈 생등심을 원육으로 사용하며 안정적인 공급만을 기반으로 원재료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높다.

또 돈가스 제조 기술 분야에서 5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전문성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바탕으로 전국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 및 관리, 2차·3차 벤더 없이 본사 공장에서 매장으로 직납하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 유지 및 물류 효율화를 실현하고, 매장 운영, 품질 관리, 마케팅까지 본사에서 일괄 지원해 가맹점 친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히노아스카㈜는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히노아스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품질·브랜드 경쟁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며 국외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홍승표 대표는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위생, 식재료의 품질, 천연재료, 맛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진심을 가득 담아 제조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화 설비 구축과 제조 설비 확충을 추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나아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생활, 미래까지 바른 건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 연구·개발" 건설현장 안전 문화 선도

광주시장상 이종만 ㈜한국건설안전관리원 대표

㈜한국건설안전관리원(대표 이종만)은 광주 북구 오룡동에서 건설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09년 5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 종합컨설팅'이란 비전으로 문을 연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안전기술을 보급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수행하며 건설현장 안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업무는 건설안전종합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 등 건설 현장에 대한 계획서 작성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공사금액 1억원~50억원 미만 건설공사)다.

이를 통해 담양~순창 도로 확장공사, 영광문화예술회관,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획서 작성, 익산병원 증축공사 기술지도와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등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보유했다.

대표 장비로는 가스농도·산소농도·절연저항·접지저항·소음기 측정기를 비롯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조도계 등이 있다.

대다수 직원들은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과 건설회사, 재해예방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갖췄다.

현재 회사의 조직 문화는 구성원 각자를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다.

이 대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다국어 안전교육 콘텐츠 무료 배포,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 산업현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운영하며 건설노동자에게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안내한다.

그 결과 회사는 2019년 5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무재해 산업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종만 대표는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한국건설안전관리원의 활동이 근로자와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현장 위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도서관 표준 혁신

광주시장상 조아름 ㈜리버트리 대표

㈜리버트리(대표 조아름)는 도서관 서지정보 국제표준(MARC)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도서관 정보 표준화와 업무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리버트리가 선보인 '실시간 MARC 자동생성 시스템'은 기본 서지정보만 입력하면 수초 내 표준 레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작업에 의존해 온 도서관 목록·정리 업무의 생산성과 정확도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과 공공도서관 현장에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KORMARC 등 표준 포맷 적용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오류가 줄어들었으며, 사서들이 이용자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조아름 대표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교육, 컨퍼런스 발표 등을 통해 표준 MARC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도서관 현장에서 '표준 데이터'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리버트리는 유럽신학도서관대회에서 한국형 AI 기반 실시간 MARC 솔루션과 혁신 도서관 시스템 사례를 발표해 유럽 학술도서관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다. 또 세계적인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Startup World Cup IR 무대에 올라 도서관 메타데이터 자동화와 글로벌 서지정보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발표하며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리버트리는 국회도서관과 서울도서관을 포함해 국내 240여개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학도서관 점유율은 약 68%에 이른다.

Check-Click 서비스와 실시간 MARC 자동생성 솔루션을 통해 7개국 2400만종의 도서와 1억 1500만종에 달하는 글로벌 논문 검색·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비롯해 미국·일본·인도네시아 등 해외 특허 등록과 국제특허 출원으로 이어지며 기술 경쟁력도 확보했다.

조아름 대표는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출발점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방식에 머물러 왔다"며 "AI 기술을 통해 표준 구축의 문턱을 낮추고, 국내 기술이 세계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빛공해 줄이는 LED 조명 상용화 '두각'

광주시장상 이성현 아라 대표

아라(대표 이성현)는 LED 실외조명 분야에서 자체 특허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로 에너지 절감과 빛공해 저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주목받고 있다.

아라는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기구 등 LED 조명기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빛공해 방지형 등기구'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해당 기술은 국제사회가 공통 과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현 대표는 다수의 특허 기술을 조명기구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유해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 왔다. 외부로 새는 빛은 차단하되, 필요한 조사 범주의 밝기는 오히려 개선해 조명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조명 대비 약 30%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구현하며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빛공해 저감 효과는 실제 설치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 창문으로 유입되는 침입광을 줄여 야간 민원을 해소하고, 수면장애와 불면증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또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터널과 공원, 우범지대 등에 적용된 조명기구는 눈부심을 줄이면서도 시인성을 높여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강화했다.

기술 경쟁력은 각종 인증과 특허 성과로 이어졌다. 아라는 현재 특허 5건과 디자인 등록 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비롯해 녹색기술·녹색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LUXKO) 등 200여 종의 인증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환경부 혁신제품으로도 선정되며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2019년 설립된 아라는 전자·조명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이성현 대표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제품 설계와 개발, 금형 제작까지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성현 대표는 "조명은 단순히 밝히는 기술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비추는 기술로 바뀌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명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영혁신·기술개발로 국가·지역 경제 근간 되길"

심사평

다사다난 했던 2025년 올해도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2025 제14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은 이 같은 지역 중소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일간지 광남일보가 마련한 행사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기법과 차별화된 마인드로 한 해 동안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과 경영인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광주시, 전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의 후원기관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 1차 서류 적격심사와 2차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18개 기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 결과 종합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자로 ㈜삼우산업(대표 허승업)과 ㈜남우기술공사(대표 김상용)가 선정됐다.

삼우산업은 담양군 수북면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 폐기물을 재활용·재생산해 친환경 소각용 고형연료제품(SRF)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금',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지원 사업 참여, 지역 청소년 체육인을 위한 지원 사업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남우기술공사는 신안군 압해읍에 본사를 둔 토목설계와 감리, 공공측량, GIS측량, 드론측량 전문 기업이다.

서남해안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 환경의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에 참여한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가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위기에 대응,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사옥 1층 MVG라운지에서 심사위원들이 2025 제14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심사를 하고 있다.